

예상보다 회복세가 빠른 태양광산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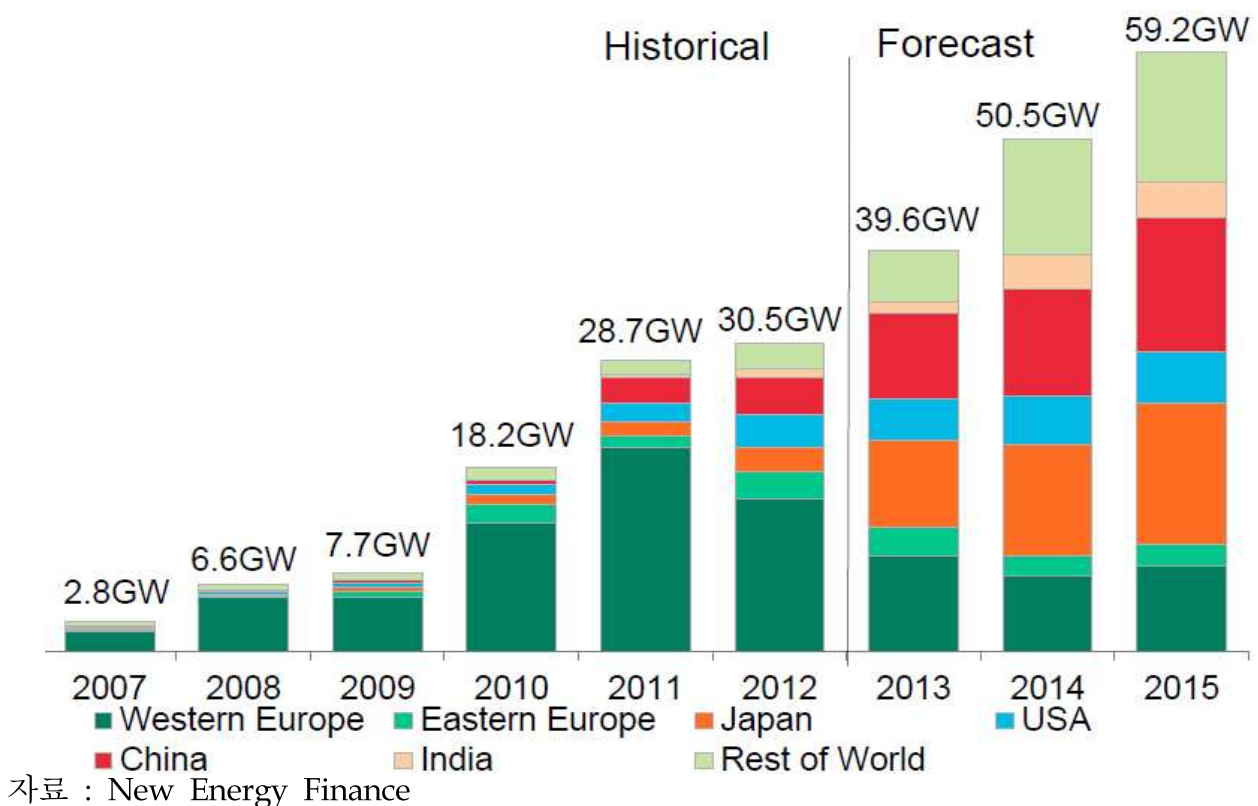
① 세계 태양광시장은 전환점을 맞고 있음

- 세계 태양광시장은 예상보다 강력한 수요가 생겨나고 있어 기존 전망치는 상향 조정될 전망
- 일본은 세계 태양광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시장으로 자리매김
 - 일본 태양광시장은 1분기 승인된 태양광 물량이 7GW에 달하며, 올해 최대 9GW이상의 태양광 발전소가 승인되어 최대 수요처로 부상
- 중국 태양광시장도 2013년 10GW 설치를 목표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음
 - 경제성장의 큰 기여를 한 저렴한 석탄 발전이 스모그 등 환경문제를 악화시켜 경제성장에 걸림돌도 작용
 - 중국 정부의 친환경 발전확대의 의지는 매우 확고하며, 향후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것
- 부진할 것으로 예상됐던 유럽시장도 그리스와 영국을 중심으로 큰 폭의 수요가 생겨나고 있음
 -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2013년 1분기 그리스는 785MW가 신규로 설치되었고, 영국도 400MW가 1분기에 신규로 설치됨
 - 유럽 최대시장인 독일의 경우도 1분기 보조금 삭감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76MW가 설치되어 연간 전망치 2GW는 충분히 달성

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

- 미국 태양광시장은 1분기 800~900MW가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며, 연간 전망치도 3.3~3.9GW에서 3.7~4.3GW로 상향
- 2013년 태양광 수요는 기존 예상치인 30GW를 크게 상회하여 40GW 가까운 수요가 생겨날 것으로 수정 전망됨
- 개도국 수요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2014년은 50GW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
- 태양광 기업들의 주가와 영업이익률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지만, 2012년 대비 2013년은 시장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
- 현재의 공급과잉 상황을 끝낼 수 있을 정도의 수요는 아니지만,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제품가격도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음

그림. 세계 태양광시장 현황 및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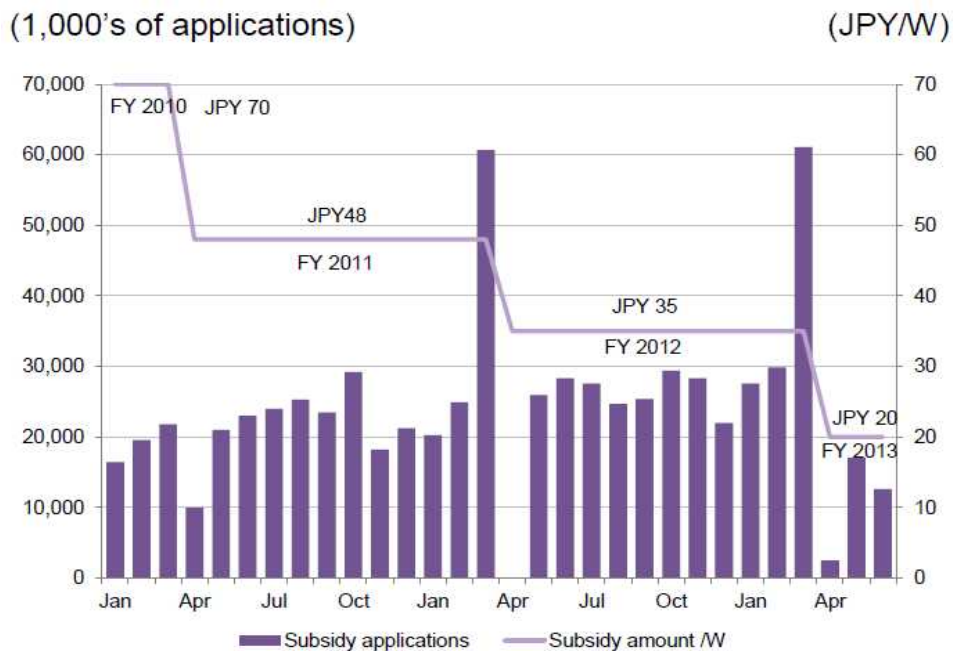


2 일본 태양광시장 동향

가. 일본 태양광산업 정책동향

-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태양광 발전차액제도 신설로 태양광시장이 활성화 되고 있음
 - 가정용 태양광발전 기준 2011년 48엔/kWh, 2012년 35엔/kWh, 2013년(4월 이후) 20엔/kWh 발전차액을 지급
- 2013년 4월 이후 발전차액이 조정됨에 따라 태양광 수요가 소강상태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

그림. 발전차액 변화에 따른 가정용 태양광 수요량



자료 : New Energy Finance

나. 일본 태양광시장 현황 및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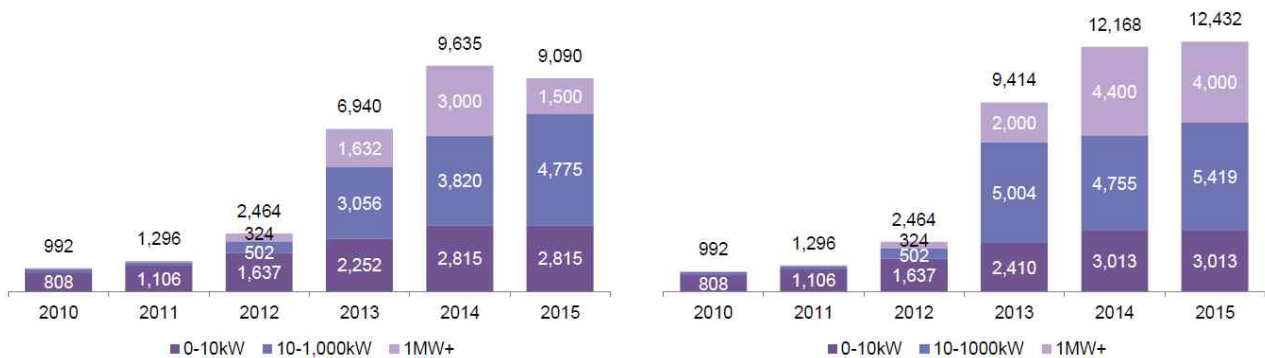
- 일본 태양광시장은 규모 및 성장률 측면 모두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
- 2010년 992MW에 불과했던 시장이 2011년 1,296MW, 2012년 2,464MW 시장으로 급성장

- 2013년 최소 6,940MW에서 최대 9,414MW 시장을 형성하여 세계 최대 태양광시장으로 등극할 것으로 전망
- 2013년 3월 발전차액금액 변경 전 승인 용량이 7,000MW를 넘어선 상황이어서 시장 전망치는 초과달성할 가능성이 높음

그림. 일본 태양광시장 현황 및 전망

보수적 전망치

낙관적 전망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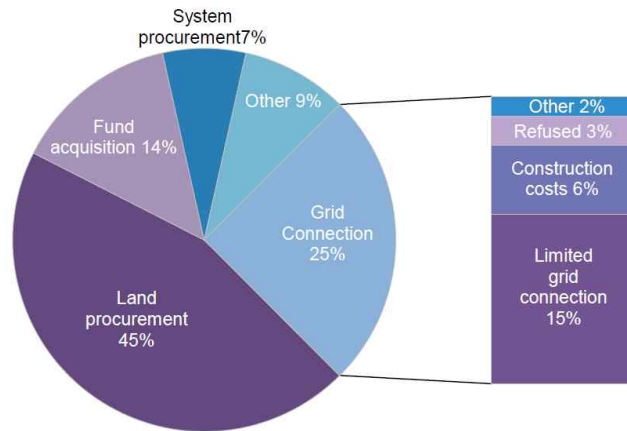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New Energy Finance

다. 일본 태양광 프로젝트 개발시 애로사항

- 일본 태양광 프로젝트 개발시 가장 큰 애로점은 토지 확보 부분이며, 그 뒤를 전력망 연결이 차지
- 프로젝트 개발업자와 토지소유주간의 적절한 토지 보상 문제가 가장 큰 이슈이며, 여기에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
- 오히려 자금조달 부분은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으로 인해 수월한 것으로 파악됨

그림. 일본 태양광 프로젝트 개발시 애로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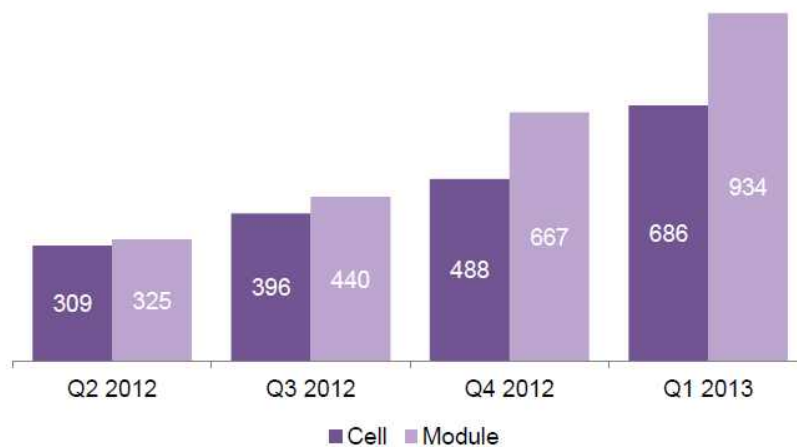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New Energy Finance

라. 일본내 태양광 모듈 공급상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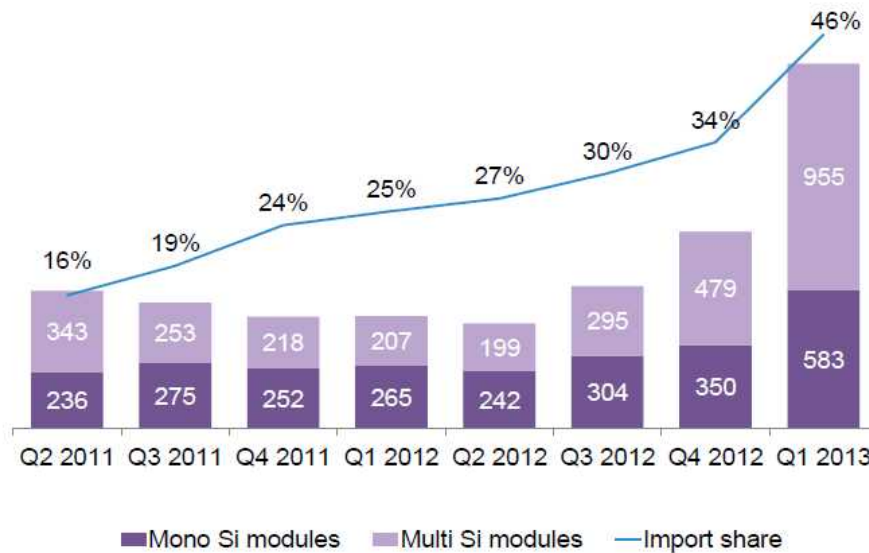
- 일본 태양광시장 부흥으로 일본 태양광 업체들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음
 - 2012년 2분기 300MW 규모에 불과했던 일본 기업들의 태양광 전지 및 모듈 생산량이 2013년 1분기 전지 686MW, 모듈 934MW로 증가
- 태양광 수요 증가로 일본 업체들의 공급량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으로, 모듈 수입량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
 - 2011년 16%였던 수입량이 2013년 1분기 46%까지 증가

그림. 일본 태양광기업들의 전지 및 모듈 생산량



자료 : New Energy Finance

그림. 실리콘 태양광 모듈 수입 증가량



자료 : New Energy Financ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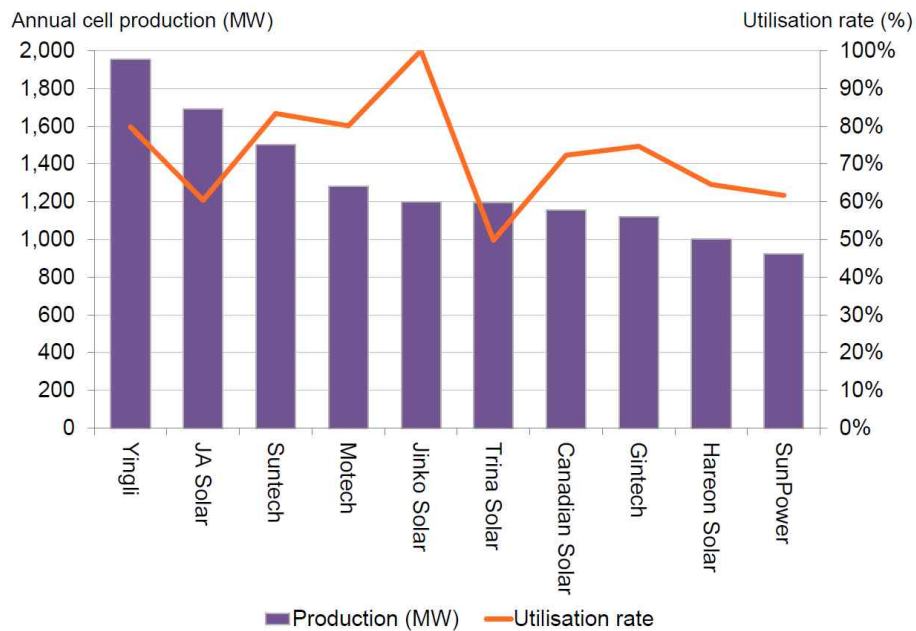
3 주요 태양광 기업 동향

- 2012년 주요 태양광 모듈업체들의 공장가동률은 50~80% 수준에 불과했음
- 태양광 수요 증가로 주요 업체들의 판매 목표량이 상향 조정되고 있으며, 공장가동률도 80~100%대인 것으로 추정됨
- Yingli사는 2012년 2.3GW 판매량 대비 40% 이상 증가한 3.2GW를 판매할 것으로 예상
 - HanWha SolarOne의 경우 전년대비 무려 70% 가까이 증가한 1.4GW를 판매할 것으로 예상
- 특히 일본의 태양광 수요 붐으로 일본 선적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, 하반기도 지속될 전망
 - 일본 내 모듈 수요 증가로 일본 업체 생산물량만 가지고는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모듈 수입량이 올해 내내 큰 폭으로 증가할 것
 - 공급과잉 상황으로 인해 판매단가는 크게 상승하지 않고 있으나, 하

락세는 멈춘 상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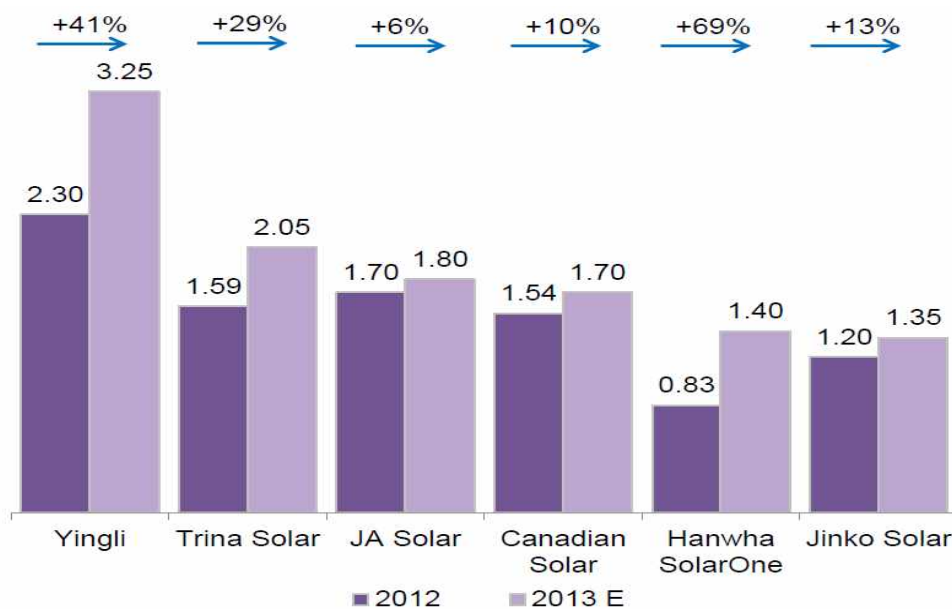
- 선도기업들 중심으로 공장가동률이 크게 올라가고 있고 제품가격도 안정되고 있어, 하반기 태양광 기업들의 수익성은 개선될 것

그림. 주요 태양광 모듈 업체들의 2012년 생산량 및 가동률 현황



자료 : New Energy Financ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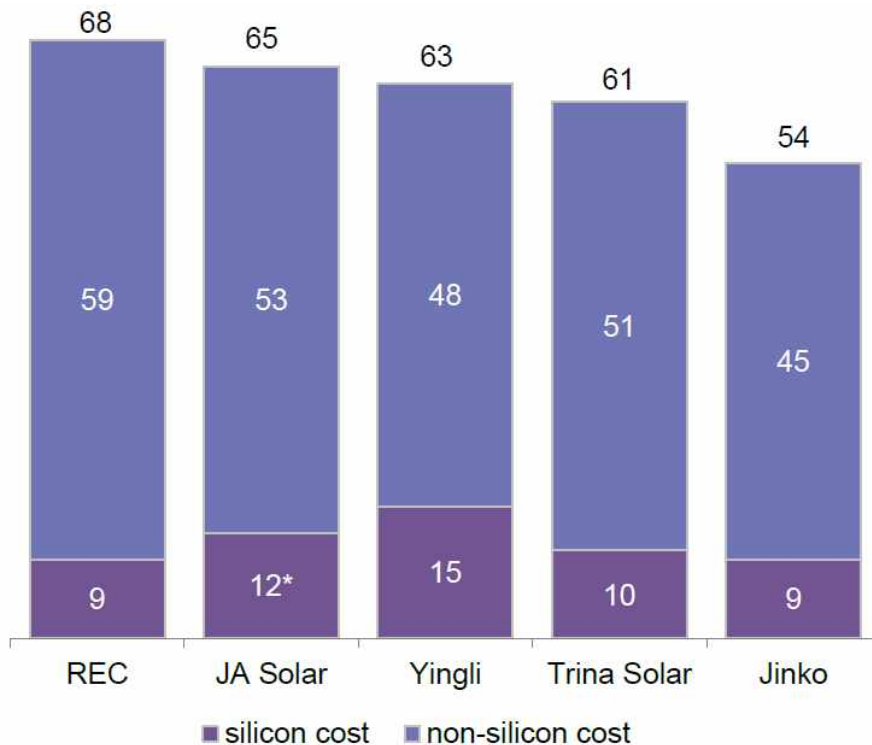
그림. 중국 모듈업체들의 2013년 생산 목표량



자료 : New Energy Finance

- 중국 모듈업체들의 가격경쟁력은 경쟁업체들을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
 - 태양광산업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장 갖추어야 경쟁력은 가격이며, 중국 업체들은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대 나가고 있음
 - 가격경쟁력 확보에 치중했던 중국 선도기업들의 전략이 다운스트림 분야의 경쟁력 강화로 변경되고 있음
 - Yingli, JA Solar 등 매출에서 차지하는 다운스트림 비중을 50%까지 확대할 계획

그림. 중국 모듈업체들이 발표한 2012년 4분기 모듈 제조단가



자료 : New Energy Finance

4 국내 태양광 기업동향

- 태양광 수요 증가로 국내 태양광 기업들의 공장 가동률도 급격히 상승하고 있음
- 한화솔라윈, LG전자, 에스에너지, 한솔테크닉스 등 국내 주요 모듈 업체들의 공장가동률이 100%에 육박하고 있음

- 중국의 반덤핑 관정으로 인한 반사이익 및 일본의 수요 급증이 주원인
- 2012년 6월 기준 300MW가 넘었던 국내 모듈재고량이 2013년 6월 기준 40MW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
 - 적정 재고를 밑돌아 현재 공장이 풀가동되고 있는 상황
- 공장 가동률은 높아졌지만 제품 가격은 여전히 제조원가를 밑돌고 있는 상황
 -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공급과잉 상황은 지속되고 있어 제품 가격 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
 - 국내 태양광기업들이 태양광산업에서 경쟁하기 위해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